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061
------	------

2023.09.04.  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08월 14일, 우형찬 의원 외 27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09.0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우형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,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 업무 도중

발생할 수 있는 재난(자연재난·사회재난)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,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

#### 나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,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 재난 발생 이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이행 추진 여부의 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.

#### 나. 실태조사 이후 평가 조항 신설의 필요성(안 제7조제3항 신설)

- ‘필수노동자’라는 용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‘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’을 ‘최전방 노동자’(Frontline Worker)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된 개념으로 핵심노동자(Key Worker), 필수노동자(Essential Worker)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

있음.

- 이와 같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궁극적으로 ‘국민의 생명·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’로 통칭되는 의미라 할 수 있음.
- 일반적으로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보건의료, 돌봄서비스, 환경미화, 운송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,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필수업무종사자법”)에서는 필수업무를 “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”<sup>1)</sup>로 정의하고 있음.
- 또한 같은 법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<sup>2)</sup> 재난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인 업무의 종사자로 볼 수 있음.<sup>3)</sup>

---

1)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2. “필수업무”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2)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3. “필수업무 종사자”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)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‘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’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2022년 기준 48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(2,809만명)의 17.3%로 나타났으며, 매년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. 손연정, 「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」,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22-14, 2022년.

- 한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자연재난<sup>4)</sup>과 사회재난<sup>5)</sup>으로 구분하고 있음.
  -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<sup>6)</sup>에서는 ‘대규모 재난’을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음.
  - 한편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 따라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는바,
- 동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시장에게 필수노동자

---

4)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5)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6) 제13조(대규모 재난의 범위)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.

1.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 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중앙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재난
2.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

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실태조사) ①·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(실태조사 및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</u>

-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재난 종료 후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필수노동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보호,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됨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#### 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 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08월 14일  
발의자: 우형찬 의원(1명)  
찬성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성준,  
김영철, 김인제, 김현재,  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 
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 
봉양순, 송도호, 왕정순,  
유정인, 유정희, 이병도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 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 
정지웅, 한신, 홍국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,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(자연재난 · 사회재난)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여,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, 이에 대한 평가 조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실태조사)” 를 “(실태조사 및 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생 략)</u>	<u>제7조(실태조사 및 평가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</u>
<u>〈신 설〉</u>	<u>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대 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 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를 하여야 한다.</u>